

신학생 떠난 방, 전시장 됐다



가톨릭평생교육원 브레디관의 공동 세면실이 다기 전시장과 무료시음장으로 변신했다.

빼그덕 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무 창틀과 유리창. 신학생들이 머물렀던 기숙사 방 한 칸 한 칸이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전시되고, 색색의 알사탕과 낡은 풍금이 어우러진 안대영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띈다. 임현재 작가가 그린 광주 교구청의 붉은 건물 역시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27일까지 '비움·나눔 페스티벌' 기숙사 세면장 등 변신...나눔 책방·주말엔 차 무료 50여 작가 참여...미디어 아트·스테인드글라스 등 선봬

만다. 전시가 열리는 브레디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만나는 건 윤종호 작가의 설치 작품이다. 버려진 형형색깔 플래카드를 재가공해 '꽃'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등 록문화제 제681호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적인 브레디관은 지난 1961년 대건신학교 기숙사로 건립된 건물로 강동원 주연의 영화 '검은사제들'의 촬영장이기도 했다. 30여개의 방은 작가들의 전시장이 됐다. 까리따스 수녀회 윤지선(제네시아) 수녀의 푸른빛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건물과 잘 어울려 색다른 느낌을 준다. 다양한 인물 조각상을 배치한 소빈 작가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서영실·조정태·이영재·윤태성·김현정·곽동준·정상섭 작

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각각의 방을 자신의 작품 스타일에 맞게 활용, 방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도 읽힌다. 기숙사생들이 사용했던 공동세면장을 근사한 다기 전시공간과 시음장으로 변신해 주말이면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으며 또 다른 방은 누구나 책을 읽고 원하면 가져갈 수도 있는 '비움나눔 책방'으로 운영 중이다. 그밖에 어린이라디오 팀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전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인 헨리관 지하로 들어선다.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붉은 벽돌을 비추는 조명이 아름답다. 이곳에서는 '인사동 스텐달', '라디오 테이즈' 등을 촬영했다.

그대로 노출된 붉은 벽돌과 배관 파이프 등과 어우러진 작품들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정선희 작가의 화려한 꽃들이 불을 밝히고 있고, 신성환 작가의 영상 작품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스타일의 십자가를 모아 둔 코너와 유리공예 시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도 흥미롭다. 이곳에서는 신정필·이세린·레이박·정운학·정정훈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교육원 야외공간에서 열리는 '야외피크닉'(13일·20일)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버스킹(힐링트리·인디언수니·강숙향·팬타곤·권혁찬·드림스 등)으로 구성되며 유리조형, 천연염색, 다도체험, 화가가 그려주는 초상화, 어린이라디오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대건문화관에서는 '그날, 바다', '1987', '택시운전사' '동주', '레 미제라블' 등 영화상영회도 열린다. 관람료 무료, 7세 이상 관람가능하다. 문의 062-380-28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의 낭만 씨네마 콘서트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영화의 명장면과 함께 듣는 영화음악콘서트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상주단체 (사)문화예술진흥회(이장자 윤택림) 소속 예술단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사계절시리즈' 세 번째 공연이 열린다.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가을의 낭만 씨네마 콘서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영화음악콘서트

다. 영화의 명장면에 방송인 이용화의 해설이 곁들여지고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지휘 이창훈)의 연주가 함께한다. '영광의 탈출', '오페라의 유령', '시네마 천국', '미션 임파서블', '질속', '태극기 휘날리며', '디즈니 매직', '레미제라블' 등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드라마틱한 영화의 명장면들을 배경으로 연주되는 주제음악들은 영화의 감동과 함께 가을의 낭만적인 밤을 선사할 예

정이다. (사)문화예술진흥회는 2007년 3월 28일 설립돼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예술법인이다. 오케스트라, 성악가 등 다양한 뮤지션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료 무료, 7세 이상 관람가능하다. 문의 062-376-7200, 062-670-79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산구 문화행사 다채

시민문화예술축제·산단영화제

13~14일 소촌아트팩토리...모닥불 파티·바자회도

광산시민문화예술축제 '사는 게 꽃 같네'와 산단영화제 '춤추고 노래하고 연대하라'가 13~14일 소촌아트팩토리(소촌동 845)에서 열린다. 광산시민문화예술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신동찬)와 광산구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공연, 시민예술가 한마당, 바자회 등으로 구성됐다.



월드뮤직밴드 '하림과 블루카멜양상블'

첫날 오후 5시에는 뮤지션 하림을 중심으로 구성된 월드뮤직밴드 '하림과 블루카멜양상블'의 '국경없는 음악회'가 세계의 민속악기로 양상블을 선보인다. 이어 '민트리오'의 '무성영화 콘서트-음악 섬의 악기들'에서 바순, 마니튜바, 우쿨렐레를 가지고 색다른 음악을 펼친다.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시민예술가 한마당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시민참여자와 함께 '동글게'를 열어 가을 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어룡초교 4학년 4반(담임 이수기)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술꽃 바자회'도 열린다. 다음날 오후 2시부터는 영화와 음악이

함께 하는 산단영화제가 열린다. 시네마토크 '파란달의 시네마레시피'를 통해 정영선 작가가 풀어내는 다양한 요리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영화 '신기록'(감독 허지은, 이경호)과 '돌아가는 길'(감독 허지은)을 연출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기타 듀오 데일리 어쿠스틱의 축하공연 뒤에는 이번 산단영화제의 주제영화인 '런던 프라이드'가 상영된다. 영국에서 지난 2014년 만들어진 '런던 프라이드'는 광부들과 성소수자의 갈등과 연대를 유쾌하게 그렸다. 한편 오는 19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에서는 'Re-mix 소촌' 2기 입주작가 기획전시인 디스코 리믹스 '네 멋대로 해라'전이 진행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960-3685. /백희준 기자 bhj@

여성 소리꾼 4명 '백년의 음악을 풀다'

박록주 명창 등 조망...내일 광산문화회관

소설가 김유정이 3년 동안 짝사랑한 박록주(사진) 명창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만난다. 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13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소리꾼 박록주·장학선·이진홍·선우일선을 다룬 '반(鬮)세기, 백년의 음악을 풀다' 공연을 연다. 이날 공연은 일제강점기 장안을 주름잡던 대표적 소리꾼 4인의 사랑 이야기와 근대 신민요에 얽힌 사연으로 꾸며진다.



박록주(사진) 명창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만난다. 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13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소리꾼 박록주·장학선·이진홍·선우일선을 다룬 '반(鬮)세기, 백년의 음악을 풀다' 공연을 연다. 이날 공연은 일제강점기 장안을 주름잡던 대표적 소리꾼 4인의 사랑 이야기와 근대 신민요에 얽힌 사연으로 꾸며진다. 인간문화재 최영숙씨와 현대시, 김혜영, 최재명, 최보길씨의 소리로 이들 4명을 추억하고 최정희, 윤현숙씨가 평양검무를 선보인다. 시인 김명이씨와 김민서(장고), 김종환(대금), 전미선(해금), 천성대(피리)씨가 출연한다. 막간에는 이춘자, 홍순옥, 김옥자씨가 '정선 아라리'를 무대에 올려 분위기를 돋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악평론가 김문성씨의 진행으로 김유정의 소설 '소나기', '봄봄'을 태어나게 한 판소리 명창 박록주의 사연과 외롭게 세상을 떠난 서도소리 명창 장학선의 이야기, 아편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북한 공훈배우이자 신민요 명창 선우일선의 꿈을 그들의 음악과 함께 풀어낸다. 1부 '4기 4색, 사랑이야기'에서는 소리꾼들의 옛 음반을 소개한다. 박록주가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